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9 772234 103000 07
ISSN 2234-103X

2019 07+08 VOL.54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통합의료원보

순천향 2019 07+08

COVER STORY

2001년 개원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1,000여 병상 규모를 갖추고 부천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 경기 서부권 거점병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2016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해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 시흥시 470만 명의 응급 상황을 책임지고 있다.

발행일 2019년 7월 2일(통권 제154호)
발행인 황경호(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한세형, 서태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120, www.schmc.ac.kr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우.04401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CONTENTS

04 **SPECIAL THEME 01**
순천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0 **SPECIAL THEME 02**
2019년 순천향대학교 교원 심포지엄

14 **순천향 의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문성 교수

18 **순천향 탐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과

22 **그때와 지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뇌내시경-뇌하수체클리닉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 이비인후과 류광희 교수

24 **순천향 이슈**
서울·부천·천안·구미병원·순천향대학교 이슈

34 **건강 돋보기**
당뇨, 예방이 최선이다

38 **건강한 칼럼**
염증성 장 질환의 임상 경과와 치료

40 **부천 풍경**
부천의 공원으로 가자

44 **우리는 동문**
원앤원성형외과의원 원기정 원장

46 **순천향 뉴스**
서울·부천·천안·구미병원·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순천향대학교·동창회 소식

순천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가치다.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부천·천안·구미병원의 안전 활동을 속속들이 소개한다.

글 편집부

지난해 6월 '소방안전관리 모범 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환자안전리더십라운딩으로 안전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2018년 5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한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04년부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1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진다. 경영진이 병원의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탐색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환자안전라운드'를 9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주제로 교직원 교육, 캠페인, 인식도 조사 등 다양한 QPS(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환자와 내원객에게 안전하며 쾌적한 병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에 앞장선다. 구미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음압격리병실 마련, 전 병동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 등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범 사업장 선정 등 안전한 병원 문화를 정착하는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소방안전관리 모범사업장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환자안전 리더십라운딩으로 안전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달부터는 수혈과 채혈, 검체 분야에서 환자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확한 진료를 보장한다.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환자안전리더십라운딩은 병원장, 부원장, 사무처장, QI실장, 간호부장 등 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직접 참여해 격월 단위로 실시한다. 경영진의 환자안전리더십을 강화하고, 일선 부서와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효과는 물론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환자 안전 사례 보고를 촉진하고, 환자 안전 이슈에 대한 신속한 개선활동을 돕는다. 시설과 장비 점검은 물론, 낙상과 투약 등 환자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과 직접 관찰로 문제를 해결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있다.

서울병원 간호부에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자 사랑'이라는 비전 아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안전점검의 날-적정 관리, 안전간호라운딩, 해피라운딩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각 부서마다 적정 관리 항목으로 멸균물품, 의료소모품, 약품(수액, 비치의약품, 임의청구약품, 각종 소독제), 준의료기구(휠체어, 유모차, 워커, 이동카, IV Pole), 기타(검체용기, 알코올 젤, 소독티슈, 의료폐기물 용기 등)물품의 유효기간과 개봉일시를 확인한다. 또한 시설물(복도 대피유도등, 화장실 및 샤워실 잠금장치 열림)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한다.

4월부터는 환자를 정확하게 인식해 안전성 개선과 채혈 및 수혈 시 환자 확인 오류 제거, 실시간 환자 정보 확인, 환자 편의향상 및 의료진 업무효율을 높이는 환자인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현재 본관 병동의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화재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5월 말 현재 모자보건센터 5, 6, 7층과 본관 10층을 완료했다. 2020년 말까지 병원 전 구역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환자 안전 관리 최우수 사례기관으로 선정된 부천병원

환자안전라운딩(왼쪽부터 박선경 QI팀장, 이은혜 QI실장, 신응진 병원장, 백정희 간호부장)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순천향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실현하는 길이라 믿고, 모든 직원이 환자 안전 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한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직원들의 오랜 노력이 쌓여 이룬 성과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해왔다. 2004년부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전담 팀을 꾸렸다. 처음에는 의료진 등 병원 직원에게만 환자 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수준이었다가,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매주 수요일 병원장, 부원장 등이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QI팀 담당자와 함께 병원 곳곳을 둘러본다.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을 만나 사고가 일어날 만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QI팀은 매일 각 부서에서 일어난 '실수'도 보고를 받는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덕분에 환자에게 해가 가해진 '위해사건' 수가 크게 줄었다.

2017년 4월, 병원 원장단과 교직원 80명이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아는 것만 대답하기', '본인 확인 철저히 하기' 등을 알리기 위해 병원 원장단과 교직원 80명이 본관 1층 로비에서 플래시몹을 하는 등 환자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인식을 제고해 화제가 되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까지 안전보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환자 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인간사랑 실현'을 함께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안전사각지대 쓱쓱 지우는 천안병원

국가 전문기관 실사에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병원임을 인증 받았다.

천안병원에서는 일 년 내내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경영진이 병원의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탐색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환자 안전 라운드'는 이미 유명하다.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을 주제로 교직원 교육, 캠페인, 인식도 조사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QPS(의료질향상 및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벌어진다.

'움직이는 중환자실' … 신속대응팀

호흡곤란, 쇼크, 심정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 발생위험이 높은 입원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전담팀이다. 병동 내 위험환자들을 미리 선별해 밀착 관리한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지 48시간 이내의 환자, 고위험 수술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지 24시간 이내의 환자가 주요 돌봄 환자다. 갑자기 악화될 위험징후가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 해 빠르게 발견, 중환자실 이송 전부터 집중치료를 시작하는 선제적 조치로 패혈증 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낸다.

실전 방불케 하는 '감염병·재난대비 모의훈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매년 수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5명의 자체 평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훈련 전 과정을 세밀하게 평가한다. 지역사회 대형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을 최대한 구호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재난대비훈련 역시 선도적으로 매년 실시한다.

'화재걱정 無' … 전국최초 전구역 스프링클러 완비

천안병원은 자동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완비한 화재안전병원이다. 최근 화재안전시설 자체점검과 함께 전국 최초로 병원 전구역에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수는 총 3,759개, 설치비용은 21억 원에 달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함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화재수신기, 방연마스크 등의 확충작업도 완료했다.

의료 방사선 피폭 '매우 안전'

천안병원은 국가 전문기관의 실사를 통해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병원임을 인증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방사선 차폐 정도, 방사선장비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정기 현장검사를 받고 있다. 현장검사에서 천안병원은 '항상',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속대응팀 활동 모습

구미병원, 전 교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다

구미병원은 환자 및 내원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도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했으며, 2018년 7월부터 전 병동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전체 건물에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증축 및 공간 리뉴얼 공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9년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본관 1층에서 3층, 신관 1층에서 6층, 별관(전층), 향설관(전층)에 스프링클러 공사와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진행 중이다.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과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관리라운딩 및 소방기기 안전점검, 모의 소방훈련 등을 통해 전문 대응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2018년 자위소방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포스터 전시회, 올바른 손씻기 체험행사,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퀴즈 대회, 유행성 감염병 대응 도상 훈련 등 환자 안전 주간을 정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기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장, 기획실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시설, 환경, 낙상 등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분기별 환자안전리더십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환자안전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순천향대학교 교원 심포지엄 성료

순천향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진단하다

2019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원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정선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SCH #hash TED'를 주제로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또한 '순천향'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글 편집부

순천향 교원이 한자리에 모인 심포지엄

순천향대학교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2019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원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정선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교일 총장을 비롯해 김성구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황경호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김승우 경영부총장, 황창순 교학부총장, 서창수 산학협력부총장, 서유성 서울병원장, 신응진 부천병원장, 이문수 천안병원장, 임한혁 구미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포함한 교내 일반학과 교수와 서울, 부천, 천안, 구미 4개 부속병원 임상교수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심사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시간

오프닝 행사에서 서교일 총장은 "대학과 병원 전체 임상교수님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진행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평상시 자주 보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교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교일 총장은 "보통 연수에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Hash TED' 강연을 통해 각기 다른 전공과 관심사를 이야기 나누고 공유한다. 질 높은 강연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구 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6년 만에 대학과 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순천향대학교 심포지엄'에서 대학과 부속병원 교원들이 다함께 모였다. 모처럼 선·후배·동료 교수와 안부를 묻고 근무지가 다른 교원들끼리 친교를 다져 대학과 부속병원 교원이 하나의 순천향으로서 소속 일체감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교육'과 '연구'라고 강조했다.

순천향의 '격의 전환(SHIFT)'이 이루어져야 할 때

6월 22일, 심포지엄 첫날에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서교일 총장은 교육과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대학·의료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공시지표로 바라본 대학의 교육·연구 현황, 부속병원 진료현황과 성과공유를 통해 대학의 현재를 분석하고, 대학과 부속 병원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연구혁신, 교육혁신, 미래형 캠퍼스타운 조성, 새 병원건립 및 4개 병원의 발전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서 총장은 "다양한 대학의 성과와 연계된 연구실적 및 연구 실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하는 순천향을 넘어 순천향의 '격의 전환(SHIFT)'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강연 펼쳐져

이어진 Hash TED 강연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뮤지컬 이야기(원종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숫자로 알아보는 자동차 이야기(양인범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아싸의 생각, 인류고령화에 대하여(이은혜 부천병원 교수), 생체 재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임상분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리역할 ; Building the bridge from bench to bedside using functional biomaterials(황용성 순천향의생명연구원 교수), 화성에서 온 교수, 금성에서 온 전공의(이동욱 천안병원 교수),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만의 비밀병기(이성진 서울병원 교수) 등 각 파트별 10분 이내의 이색 강연이 펼쳐졌다. 각 강연을 통해 교원들은 서로 다른 관심사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나누었다. SCH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문성 교수

결국 고마움에 관한 마음이자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곧잘 잊는다. 하지만 이문성 교수는 언젠가는 되갚을 마음으로 가슴 깊이 꾹꾹 새겨둔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말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8~9대 병원장을 역임한 이문성 교수를 만나 마음 깊이 담아둔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바쁘게 일해온 지난날의 쾌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문성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9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을 역임했다. 요즘은 빡빡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한결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장을 내려놓은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많아진 여가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 갈팡질팡했습니다. 요즘은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고, 미뤄둔 책을 읽고, 짬짬이 운동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을 맡은 4년간 이문성 교수는 열심히 일했다. 그간의 노력은 최근 수상에서 빛을 발한다. 지난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조기 위암·대장암·식도암 등 소화관암의 내시경 치료술을 선도해 국내 소화관 내시경술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자, 부천병원 병원장을 역임하는 사이 경기 서북부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천병원 직원들에게 공로를 넘긴다.

"이번 표창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 모두에게 주는 상입니다. 특히 원장이었을 때 공적은 부천병원 가족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혼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았을 뿐이지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신 부천병원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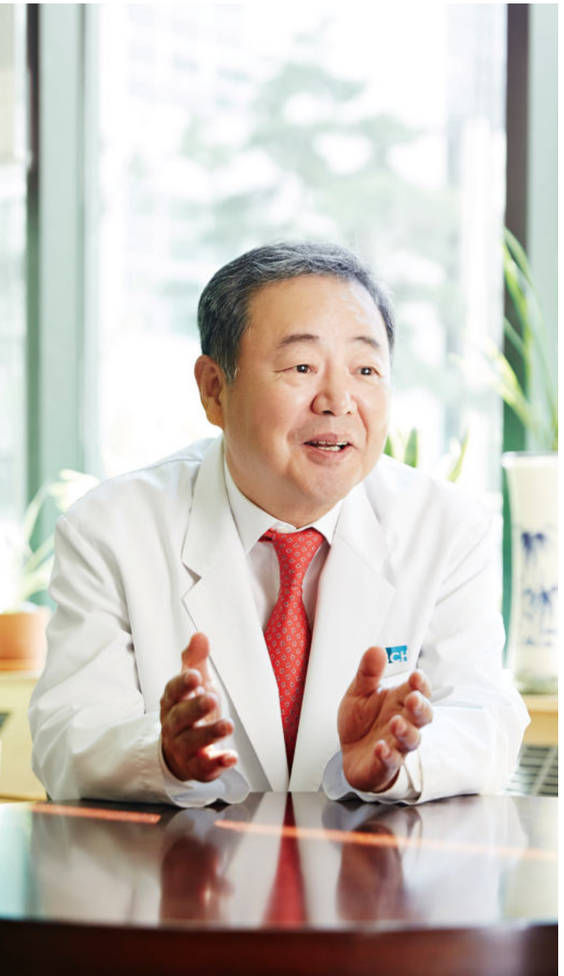
고마운 지원으로 시도한 소화관암의 내시경 치료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의 의료 수준은 국내 최고로 손꼽힌다. 특히 내시경 분야는 소위 우리나라 '빅5'라고 불리는 병원뿐 아니라 외국 어느 병원에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실력과 업적,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 의료진이 견학을 오고, 외국 학회 등에서는 우리나라 교수들을 초청해 우리 기술을 전수 받는 수준이다. 문종호 교수와 이윤나 교수는 췌담도 질환을 진료하고, 김영석 교수와 김상균 교수는 간 질환, 유창범 교수와 홍수진 교수는 상부 위장관 질환, 고봉민 교수는 하부 위장관 질환을 다룬다. 이들이 모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명의라는 것이 이문성 교수의 설명이다. 덧붙여 "부천병원 소화기내과를 명실공히 소화관 내시경학을 선도하는 세계적 소화기 내과학 교실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한다.

1990년대 이전, 내시경치료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위 내 아주 작은 미소위암이라도 외과적 위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간혹 수술 고위험군에서는 결국 암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고, 근위부 위암 중에서 특히 고령 환자는 외과적 수술 후에도 부작용 등으로 삶의 질이 좋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고민하던 이문성 교수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일본에서 시도하는 'Strip Biopsy'라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접하게 된 것이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Strip Biopsy' 방법으로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하고, 그 후 조기위암을 비롯한 위 편평 병변 10여례를 모아 1992년 대한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위암을 내시경으로 근치한다는 것에 특히 외과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조기위암을 다양한 내시경 절제술로 절제합니다. 1993년에는 대장암의 내시경 점막절제술, 1994년에는 EEMR tube를 이용한 조기 식도암의 내시경 절제술을 처음 시행하고, 그 후에도 소화관 조기 암의 다양한 내시경 절제술 및 소화관 암성 협착의 내시경 삽관술을 개발, 소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당시 전임강사에 불과했던 제게 일본 단기연수, 내시경 첨단 기기 도입 등 파격적으로 지원해주신 당시 과장님인 심찬섭 교수님과 병원 경영진의 도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하나로 모이게 하다

이문성 교수는 이번 수상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병원장을 지내는 4년 동안 병원 발전과 교직원 소통 활성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도 인정받았다. 특히 2015년 국가적 재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최상위 의료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신속한 선별진료소 설치와 음압격리실 운영 등 체계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지역 내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조기 퇴치에 기여했다.

"메르스 사태 초기, 역학조사에서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메르스 환자로 밝혀져 우리 병원은 긴급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또 부천 지역 유일한 상급병원으로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출입로가 너무 많아 통제하는 데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병원 외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의료진의 큰 희생이 필요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의 위상에 맞는 바이러스 직접 검사 체계를 운영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랐지만 교직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밤낮 없이 근무했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당시 긴박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찔하다고 전한다.

"긴박하고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원장으로서 직원들의 큰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힘든 시점에서 망설일 때, 부천병원 교직원 모두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희생정신, 일사불란하면서도 체계적인 모습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 밤새 일해 피곤하면서도 출입구에서 내원객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간호사와 행정직원들의 밝은 인사, 외래 진료 후에도 추가로 선별진료소에서 땀 흘리던 소아과·내과 의료진들, 작은 체구에 무겁고 답답한 보호구를 입고 고군분투하던 감염내과 김탁 교수, 밤새 바이러스 검사하느라 눈은 충혈되고 깎지 못해 덥수룩해진 수염을 하고도 "힘들지?" 물으면 "아니요, 할 만해요"라고 환하게 웃던 신희봉 교수 등 모든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이 고마움의 빚이 마음 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갚을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이오클리닉'을 꿈꾸며

이문성 교수는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2016년,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해 부천시·인천광역시·시흥시를 아우르는 인천 권역 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사수하는 데 힘썼다. 또,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치료비 후원사업을 시행하고, 부천시가 주최하는 '복사골 건강한마당'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해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경기 등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이외에도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2014~2018년)'으로서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신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비 및 생계비, 법정 절차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이문성 교수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부천시민의 병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기에는 택시기사와 만난 일화가 숨어 있다.

"첫 부원장 할 때니까 약 10년 전입니다. 송내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병원까지 오는 채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내내 기사님이 부천병원 험담을 하는 겁니다. '순천향 가지 마라, 진료비도 비싸고 불친절하다'부터 시작해 '의사들 실력도 서울병원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별로다' 등 없는 말까지 지어가면서 말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했지만 '우리 교직원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시민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된 후 취임식에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순천향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택시기사들의 병원 내 휴게 공간 조성과 음료수 서비스, 택시기사조합과 MOU를 추진하고, 그 외 소상공인연합회 등 많은 부천시민단체와 MOU를 맺었다. 또한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순천향 봄·가을 축제를 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천시민 행사에 후원하고 동참했다. 그 결과 10년 전과 달리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그가 생각하는 병원의 올바른 모습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클리닉'이다.

"로체스터 주민들은 '메이오클리닉'을 그들이 키운, 자기들의 병원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낍니다. 이렇듯 지역병원은 지역사회에 파고들어 병원이 아닌 문화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도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환자를 치료하는 이문성 교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마음에 새긴다. 환자 편에 서서 환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한편 그렇게 찾은 최선의 방법이 틀리지 않도록 스스로 열심히 공부한다. 그는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사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꼽는다.

"의사가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그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라고 묻는 이문성 교수. 앞으로도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진료하고 수술하고, 연구하고, 후배 양성에 힘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받아왔던 고마운 마음들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위 사람들은 물론 사회에서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들을 내가 건강하고, 세상이 내 재능을 필요로 할 때까지 열심히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정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봉사하는 삶을 살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과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다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과에서는 안과 질환에 대한 환자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진료를 선보이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과 사람들을 만나보자. **글** 김민정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구미병원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는 대개 약물과 수술요법으로 치료한다. 백내장 수술 뒤 시력 회복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기존 백내장 수술법은 물론 초음파 유화흡입술, 무봉합각공막절개술 같은 최신 기법을 이용한다. 녹내장 진단에는 안압정밀검사와 안저검사가 먼저다. 녹내장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신경유두부 분석과 자동시야계검사, 시기능검사를 시행한 뒤 약물과 레이저로 치료한다. 또한 망막질환은 세극등검사, 색각검사, 안초음파검사, 형광안저조영술, 빛간섭단층촬영 같은 정밀검사를 통해 망막질환 유무 및 정도와 형태, 발병 원인을 확인한 뒤 약물과 망막 레이저 치료, 안구내주사요법 등을 시행한다.

꼭 기억해야 할 안과 질환 예방수칙 5가지

눈에 이상이 있을 때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는 것만큼 평상시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미병원 안과 강동진 교수는 5가지를 강조한다. 먼저 40세가 넘었으면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다. 40세 이상에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같은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므로 이들 질환을 조기 발견하려면 눈 검사가 필수다. 두 번째, 콘택트렌즈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한 뒤 착용한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하지 말고 실내 조명은 밝게 유지한다. 네 번째, 눈 건강과 관련 있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꾸준히 치료 받고, 특히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자녀가 만 4세가 되기 전 시력검사를 해서 약시인지 확인한다. 약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고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력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더불어 급증한 미세먼지에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미세먼지는 눈물막에 손상을 일으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눈에 달라붙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며, 심하면 시력 저하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다. 하루 4~6회 인공눈물을 점안하고, 다른 점안제를 병용해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고,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면 도움 된다.

세분화한 의료진 갖춰 지역 사회에 도움 줄 것

구미병원 안과 진료실은 늘 환자들로 붐빈다. 구미병원 안과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덕분이다. 전문의 2명과 간호사 4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안과 의료진은 근무 시간 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바쁜 업무 시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나 고충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남다른 유대감과 끈끈한 정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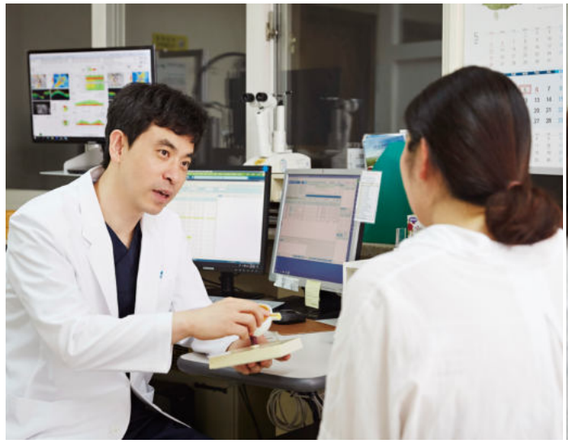
강동진 교수는 "안과 질환은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환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우리 병원 안과는 구미 지역에서 1차 병원과 3차 병원의 중간 역할을 한다. 환자가 굳이 3차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한다.

구미병원 안과 김리브가 교수는 "안과 진료가 점점 더 세분화하고, 환자 역시 날이 갈수록 전문화한 의료진을 찾는 추세다. 앞으로 우리 병원 안과도 시대 흐름에 맞춰 파트별 세분화한 의료진을 갖추면 지역 사회 의료를 이끌어가는 대학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한다.

최신 기법 이용한 전문 의료 서비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안과는 지역 주민의 눈 건강 지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력검사, 색각 이상, 굴절 이상, 당뇨 및 고혈압성 망막증 등 진료와 백내장과 녹내장 검사 및 수술, 사시교정술과 안검하수, 안검내반에 대한 외안부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 크고 작은 안과 질환을 치료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첨단 검사 장비로 유명한 독일 자이스(ZEISS) 사의 CIRRUS HD OCT-500을 도입해 진료에 이용한다. 이 장비는 정밀도가 5㎛(마이크론; 1cm의 2,000분의 1)으로 해상도가 무척 뛰어나다. 망막의 종횡단면을 한 번에 정확히 촬영해 초기 병변을 확인하고, 황반변성 및 망막 질환의 초기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녹내장 초기의 시신경층 약화나 손상을 감지할 수 있고, 시신경층의 두께를 분석함으로써 증상이 없는 초기 녹내장도 감지할 수 있다.



I n t e r v i e w

김리브가 교수

안과 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병원 안과를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이야기하고, 안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 곳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안과에서 일하는 직원은 출근이 즐겁고, 임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케이스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등 의료진 모두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곳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강동진 교수

환자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진료를 하겠습니다

눈은 잘 보이면서 편안해야 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무척 불안해집니다. 우리 병원 안과를 믿고 찾아오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눈이 불편해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음까지 보듬으며 진료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날 여름날이 머지않았네

지난해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진단을 받은 이여름 양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뇌내시경–뇌하수체클리닉에서 '뇌내시경을이용한 두개저 접근 및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스물 셋의 이여름 양은 이제 아름다운 청춘의 나날을 즐길 준비가 되었다. **글** 편집부 **사진** 제동환(스튜디오100)

(왼쪽부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 보호자 김선희 씨, 이여름 양, 이비인후과 류광희 교수

아직 피지 못한 꽃청춘에게 찾아온 시련

청춘(靑春).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에 걸치는 '청춘'의 시기에 우리는 자주 크게 웃고, 찬란한 꿈을 꾼다. 하지만 이여름(23) 양에게 그 시절은 녹록지 않았다.

여름 양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극심한 생리통을 겪기 시작했다. 학교를 자주 결석할 정도였다. 수능을 마치고는 1년 6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다니며 치료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뇌하수체호르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높은 호르몬 수치가 나오자 담당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을 권했다. 검사 결과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으로 진단했다. 두개인두종은 뇌 중앙에 위치한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양성 뇌종양의 일종이다.

여름 양과 어머니 김선희 씨는 그해 여름, 개두술을 통한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시력 저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고민하지 않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뇌내시경을 이용한 두개저 접근 및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김선희 씨는 "오랜 세월 천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인 만큼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말한다.

이름처럼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수술은 천안병원 뇌내시경–뇌하수체클리닉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와 이비인후과 류광희 교수가 공동으로 집도했다. 두 진료과 교수가 함께 집도하는 건 다른 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재수술을 하면 유착 등 문제가 생겨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름 양의 시력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고, 호르몬제를 복용하며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의 설명이다.

이여름 양은 내시경으로 종양을 절제한 후 이비인후과 외래를 다니며 치료했다. 종양을 절제하면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한 부위(두개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 때문이다.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점막으로 피판을 만들어 종양을 떼어낸 부위에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이다. 재건 수술 후에는 제법 고통이 따르는데, 여름 양이 잘 참아주었다고 이비인후과 류광희 교수는 말한다.

"수술 후에는 뇌척수액이 코로 흘러나올 가능성 때문에 며칠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환자에게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름 양은 다른 환자보다 코 안이 민감해 수술 후 코 안의 패킹을 제거하거나 드레싱 처치할 때 고통을 많이 느꼈지만 늘 씩씩하게 잘 참아주었습니다. 수술 이후 코 안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발생해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추가 입원 기간과 통원 치료에도 항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양은 종양 제거 부위, 비중격 피판 채취 부위 모두 완전히 나아 코에 불편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여름 양은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 사이 체중이 늘고, 마음은 조금 생기를 잃었다. 하지만 다시 아프기 전 밝고 생기 있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여름 양 어머니 김선희 씨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뇌내시경–뇌하수체클리닉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병원에 올 때마다 늘 살갑게 웃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의료진 덕분에 여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모든 계절은 저마다 의미가 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다. 이여름 양이 이름처럼 무럭무럭 푸르게 성장하기를, 그래서 누구보다 활짝 핀 청춘의 시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아람 교수팀

5년 무병생존 94.7%, 전립선암 수치 44.8개월 동안 점진 하강 “전립선암 환자 사이버나이프 장기치료 효과 좋아”

국소전립선암을 사이버나이프 치료한 이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나왔다.

장아람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이 Radiation Oncology(2018년 11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결과와 전립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의 변화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방사선종양학 연구위원회(KROG)의 다기관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3개 대학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 인하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 사이버나이프로 치료한 국소전립선암 환자 88명을 장기 추적 관찰한(중간값 63.8개월) 결과를 분석했다.

전체 환자군의 5년 생화학적 무병생존율(biochemical relapse-free survival)은 94.7%, 2명의 환자(2.2%)만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사이버나이프 치료 후 혈중 최저 전립선 특이항원농도(PSA)는 0.00~2.62ng/mL 범위(중간값 0.12 ng/mL)까지 떨어졌고 최저치까지 도달하는 데 44.8개월(0.40~85.7개월 범위)이 걸렸다. 사이버나이프 후 24개월 이전에 최저치에 도달한 그룹이 24개월 이후에 도달한 그룹보다 생화학적 무병생존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 최저치에 늦게 도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았다.

장아람 교수는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은 후 5년 동안 생화학적 재발이 4명에 불과해 장기간 치료성적이 매우 좋다. 또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농도가 기존 방사선 치료 후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최저치를 보인 것과 다르게,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좋은 치료성적을 보이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전향적 다기관 연구의 방사선 수술 성적과 비슷하며 전립선암이 고위험군과 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다.

사이버나이프는 움직이는 장기를 포함해 전신에 발생한 악성·양성 종양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정확하게 제거하는 로봇 방사선 치료기기다.

일반 방사선치료보다 많은 용량의 방사선을 1~5회로 나눠 뇌종양, 척추종양, 전립선암, 폐암, 간암 등 원발 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전이 암에 적용해 수술로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특히 전립선암 치료 시 사이버나이프의 지속적인 영상유도장치와 전립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율 교정되는 추적시스템을 통해 방광, 요도, 직장 등 주변 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가장 정밀하다는 방사선 근접치(brachyherapy) 수준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근접치료와 다르게 비침습적이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움직이는 전립선에 정확하게 조준해 고용량 방사선을 4~5회의 적은 치료 회수로 나눠 치료해도 부작용이 적으면서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08년부터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해 11년간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왔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VOLO™ optimization system과 다엽콜리메이터(InCise™ Multileaf Collimator)를 장착한 최신 버전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M6™ FM)를 도입해 가동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수부센터·특수클리닉 개소

성형외과 · 정형외과 통합 원스톱 진료로 전문 집중 치료 제공

수부센터·특수클리닉 개소(첫줄 왼쪽부터 김병성 수부센터장, 신응진 병원장, 민경대 대외협력부원장, 박은수 성형외과 과장)

김병성 수부센터장이 환자에게 증상과 수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5월 15일 손과 팔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수부센터·특수클리닉' 개소식을 가졌다.

부천병원은 기존 수부센터를 개편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특수클리닉을 중심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특수클리닉은 절단된 손가락이나 손의 신경, 혈관, 인대를 수술 현미경과 미세수술로 재건하는 '미세접합술', 사고나 기형으로 손가락이 없을 때 이식과 재건을 통해 복구하는 '손가락 재건술', 손가락에 발생하는 결절종, 거대세포종 등 '수부 종양', 손가락이 휘어진 '측만지', 추위나 스트레스 등으로 손끝이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 합지증, 다지증 등 '선천 기형', '수부 화상'과 이로 인한 '반흔 구축' 등 손과 팔에 발생하는 포괄적인 질환에 세부 진료를 시행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부센터·특수클리닉은 외래 진료실을 비롯해 검사실, 석고실, 재활치료실을 한 공간에 배치해 전문의 책임 하에 진단과 처치, 치료, 수술 등 모든 치료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또 휴일에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는 응급실을 통해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통합 진료로 운영하는 수부센터·특수클리닉 의료진은 김병성 수부센터장(정형외과)을 필두로 박은수·최창용·남승민 성형외과 교수, 김영환 정형외과 교수 등 수부 전문의 교수진으로 꾸려졌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의료진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수부질환 환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성 수부센터장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수부 세부 전문의를 주축으로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가들이 함께 다학제 치료를 실시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거듭하겠다"고 센터 운영 방안을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과기부 및 복지부 주관 대형국책과제 유치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4년 60억 규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충청권역을 대표해 대형국책과제를 유치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의 충·남북·세종시 권역 수행병원으로 선정된 것. 이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진 종합병원에 사업을 맡겨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신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의와 연구자간 협업연구를 통해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하는 것이다. 매년 국비 7억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4억5,000만 원이 지원되며, 순천향대천안병원도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등 연간 15억 원, 4년간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임상현장 기반 아이디어 발굴 및 실용화 연구인력 육성지원이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임상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연구결과 실용화 단계다.

연구책임자 백무준 교수(외과, 연구부원장)는 "총 10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실용화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확립에 주력하고, 신진 임상 의과학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이번 사업에서 진행하는 10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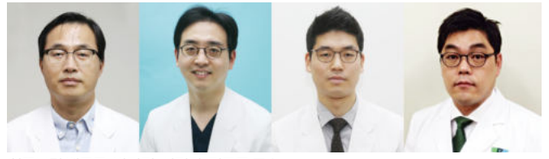
신진 의과학자 양성 연구역량 강화세부(연구부원장 백무준 교수, 산부인과 전섭 교수, 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 임상의학연구센터 정동준 교수), 대장암 복막전이 치료를 위한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약물 결합체 개발연구(외과 강동현 교수), 신나노 전달체의 암세포 사멸 기능을 이용한 난치성 뇌신경교종의 새로운 항암프로토콜 정립(신경외과 오재상 교수), 다양한 수면장애 형태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예측 및 예방 모델 개발(핵의학과 유익동 교수), 소아의 재발성 상기도 감염 치료를 위한 선천 면역조절제 개발(이비인후과 류광희 교수), 간세포암종 특이 혈관내피세포 바이오마커 발굴을 통한 표적치료 유전체학적 기반 연구(소화기내과 양재국 교수), 난소암에서 엑소좀의 암세포 교류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조기진단 기술 개발(산부인과 전혜지 교수), 머신러닝 기반의 중환자실 혈당조절 자동화 시스템 구축(내분비내과 김대연 임상조교수), 만성신장병 신바이오마커 기반 단백질칩 및 RNA칩 개발(신장내과 이은영 교수, 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일회용패치 기반의 환자모니터링시스템 개발(신장내과 길효욱 교수, 순천향대 컴퓨터SW공학과 홍민 교수) 이문수 병원장은 "연구부원장 직제 신설 등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 인프라 확충에 힘써 온 것이 대형국책사업유치로 이어졌다"며 "그동안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연구 결과로 국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원사업에 4개 연구과제 선정

천안병원은 최근 정부 연구비지원사업에 4개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한국연구재단 주관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과 '개인기초연구사업'에 각각 2개씩이며, 과제별 연구비 지원규모는 연간 5천만 원 이내 최대 10년이다.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바이오마커 CPNE7을 이용한 대장암 치료용 표적항체 개발(외과 백무준 교수), 다종세포 3차원 두경부 상피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항암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기술 개발(이비인후과 반명진 교수)이다.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 과제는 MOG 자가항체 항원결정기에 따른 MOG 뇌척수염의 임상적 특성 연구(신경과 석진명 교수), 단일암 줄기세포 RNA 시퀀싱법을 이용한 대장암 재발 및 전이 관련 유전자 검증 및 유전자 메커니즘 규명 연구(임상의학연구소 정동준 교수)다.

만성 콩팥병 조기진단 기술개발 착수



왼쪽부터 백무준, 반명진, 석진명, 정동준 교수.

천안병원이 만성 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섰다. 천안병원은 이를 위해 5월 29일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의약바이오 및 임상진단 분야 전문기업인 ㈜바이오테크네 코리아, ㈜셀젠텍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2024년까지 바이오마커 발굴, 조기진단 바이오키트 개발, 조기진단 바이오키트 상용화 플랫폼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SCH

40주년 맞은 구미병원의 행보는 계속된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고, '순천향'의 아름다운 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 상반기 진행한 4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한다.

협력병의원 만남의 장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구미병원은 지난 6월 13일 구미BS호텔 대연회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2019년 협력 병·의원 간담회 및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력 병·의원 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최신 지견의 공유와 폭넓은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임한혁 병원장, 양승부 기획실장 등 병원 의료진들과 민명기 구미시의사회장,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등 구미병원과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70여 명의 지역 병·의원 의료진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좌는 전립선비대증의 진단과 치료(조규형 비뇨의학과 교수),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서기원 정형외과 교수), 신경과에서 만나는 손발 저림(정진우 신경과 교수), 우연히 발견되는 폐결절 접근법(석양기 흉부외과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향 희망을 걷다 그리고 순천향 희망을 보다

지난 5월 11일에는 순천향의 아름다운 도전을 실천하기 위해 Great Challenge '순천향 희망을 걷다' 40Km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황경호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임한혁 병원장 등 구미병원 주요 보직자와 50여명의 구미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구미병원을 시작으로 강변도로, 산호대교, 해평, 구미보, 고아, 신평을 거쳐 다시 구미병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참여한 교직원 전원이 완보하였으며, 완보증을 수여하는 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구미지역 9개 보훈단체 무료검진 실시'

지난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구미지역 9개 보훈단체 4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임한혁 병원장을 비롯하여 양승부 기획실장(영상의학과), 김우석 홍보실장(외과), 신용분 간호부장 등 15명의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검사항목은 체성분 검사와 복부초음파, 건강 상담 등이었다. 무료검진 역시 순천향대 구미병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한편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2001년부터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주차장 증축 등으로 국가 보훈환자 및 내원객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민 위한 무료 건강강좌 개최

5월 한 달간 주 1회, 오후 3시부터 본원 향설교육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5월 2일에는 유방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이진형 외과 교수), 9일에는 알레르기 비염(전영준 이비인후과 교수), 15일에는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김리브가 안과 교수), 23일에는 상처 및 흉터 관리 '나에게 맞는 눈 성형'(송우진 성형외과 교수), 30일에는 여성의 출산 이후 건 강관리 '산부인과에서 애만 낳는다고요?'(홍정아 산부인과 교수) 등 건강강좌를 열었다. 건강강좌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했으며, 개원 40주년 기념선물을 증정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원 40주년 기념 '찻집 이벤트'

지난 6월 19일에는 개원 40주년 기념 '찻집 이벤트'가 열렸다. 구미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불철주야 환자진료 및 병원발전을 위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함께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다. 임한혁 병원장을 비롯해 양승부 기획실장, 권용일 사무처장, 신용분 간호부장 등 구미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구미병원 교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한 주요 보직자들이 점심시간 지하 식당 앞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오렌지 주스 등을 손수 만들어 나눠주었는데, 평소 볼 수 없던 모습에 모두 웃음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밖에 뽑기, 가위바위보 등 추첨 이벤트를 통해 휴대용 보조배터리, 물병 등 50여 명의 교직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 취·창업 카페 1호점서 ‘관학협력 취업캠프’ 열려

순천향대학교는 6월 18일 대학 인근 충남 취·창업 카페 1호점 ‘고고쓰커피’에서 4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관·학 협력 취업 실전캠프를 열었다.

대학교에 따르면 성격유형별로 대인 관계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돕기 위한 DISC(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대인관계 능력향상 특강(최장희 취업지원관), 2019년 채용 동향 파악 및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조건, 나만의 취업전략, 취업준비 시작하기 특강(충남경제진흥원 박수정 강사)이 이어졌다.

한편 취업 실전연습은 직무역량 탐색, 입사지원 서류작성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으로 구분하고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개인별 강

점을 분석한 후 직무역량 찾아주기, 밀착 컨설팅을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 클리닉 운영, 실전 면접 매뉴얼을 통한 실습과 컨설팅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은 “충남 취·창업 카페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나아가 충남 지역을 이끌어나갈 인재로 자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써 노력하겠다”며 “지역 기업체의 다양한 직무별 인사 담당자를 멘토로 선임해 ‘토크콘서트’ 등의 형태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 듣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순천향대 진로개발처장은 “충남 취·창업 카페에서 지역 인재를 포함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직무 이해, 취업전략 수립 등을 상담하고 정보를 공유해왔다”며 “앞으로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 중견기업 또는 유망 강소기업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충남경제진흥원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성과로 이어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남 취·창업 카페 고고쓰 커피숍은 천안 아산지역 디스플레이 중견기업, 자동차 관련 중견기업, 일반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200여 명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왔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신문방송학과 나진주 학생은 “‘DISC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내가 주도적이고 사교적인 대인관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번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게 줄고 약점 보완 등 앞으로 취업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1학기에는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동아리로 구성해 진로상담, 입사지원서 컨설팅, 직무 특강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학기에는 학생 스스로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찾고 실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전 취업 교육을 동아리별로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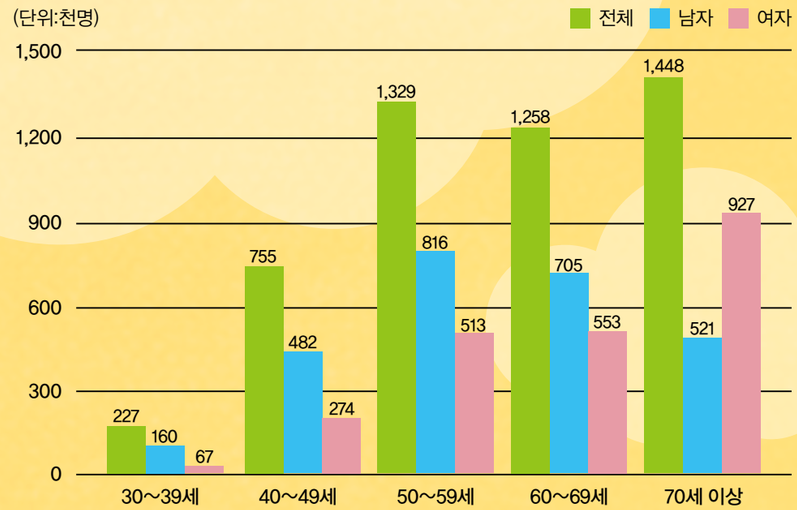
한편 지난 4월 24일 오픈한 ‘충남 취·창업 카페 1호점(고고쓰커피)’는 취·창업에 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취·창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이른바 ‘코워킹 취·창업 카페’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학이 협력하는 삼각벨트 운영체제로 순천향대와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시가 공동 협력하고 성과를 모색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뇨, 예방이 최선이다

당뇨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으로 한국인의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501만 명으로 추정되며, 30대 23만 명, 40대 76만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보연 교수가 당뇨병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한다.

글 김보연(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 당뇨병

당뇨병이란 혈액에 과다한 포도당(혈당)이 소변으로 넘쳐 나와서 붙은 이름이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성분이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그대로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며, 이런 병적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한다. 제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지만,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급성 발병을 하며 심한 다뇨, 다음, 체중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인슐린이 절대 결핍해지면서 케톤산증이 일어난다. 고혈당을 조절하고 케톤산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인슐린치료를 해야 한다.

제2형 당뇨병은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중 정도에 따라 비만형과 비비만형으로 나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칼로리는 과잉 섭취하는데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슐린 성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나타난다. 이때 조절하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 감소가 뒤따른다.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Diabetes Fact Sheet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501만 명으로 추정되며, 30대 23만 명, 40대 76만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 비만과 밀접한 당뇨병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전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 한 사람만 당뇨병이면 15% 정도다. 하지만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당뇨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해 당뇨병이 발생한다.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듯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만하면 몸속 인슐린 필요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점점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생긴다. 연령도 중요한 요인이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도 높아진다.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고 당뇨병을 유발

하므로 탄수화물(설탕 포함)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 운동부족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원인이다. 운동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저항력을 떨어트린다. 우리 몸에 오래 축적된 스트레스는 부신피질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일으킨다.
당뇨병을 앓는 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계절은 없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줄고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식사조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혈당검사로 진단한다

당뇨병은 대개 혈당검사로 진단한다. 당뇨병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당화혈색소 6.5% 이상
- 8시간 이상 공복혈장포도당 126mg/dL 이상
- 75g 경구당부하 후 2시간 혈장포도당 200mg/dL 이상
- 당뇨병의 전형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포도당 200mg/dL 이상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혈장포도당 100mg/dL 미만, 75g 경구당부하 후 2시간 혈장포도당 140mg/dL 미만이다. 당뇨병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상 혈당을 벗어났을 때는 당뇨병 전단계(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로 분류한다.

당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등 나타나

제2형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합병증이 나타날 시점까지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의 3분의 1정도가 진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뇨병 초기에는 전형 증상 없이 피로만 느낄 수도 있다. 당뇨병의 전형 증상은 다뇨, 다음, 갈증, 피로, 시력저하, 발의 이상감각, 상처 치유 지연, 설명할 수 없는 체중감소 등이다.

기본 치료는 식이·운동·약물 요법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여 일생 정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당뇨병 치료의 기본은 식이·운동·약물 요법이다.
당뇨병은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섬유질 많은 음식과 저지방·저칼로리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달고 짠 음식,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그러나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은 위험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음주, 흡연을 삼간다.
식사 조절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을 이루는 세포에서 당분과 지방 이용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체중 조절, 근력 강화, 심폐기능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식사와 운동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한다. 경구혈당강하제는 환자의 특성에 맞게 처방하는데, 규칙적인 복약이 매우 중요하다. 제1형 당뇨병, 임산부, 심한 고혈당 증상이 동반해 경구혈당강하제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당뇨병 관리는 장기전이다. 스스로 판단해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혈당과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받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받은 스트레스는 빨리 해소하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당뇨병의 진단

	혈당(mg/dL)			당화혈색소 Hba1c(%)
	공복	당부하검사 2시간	무작위	
정상	< 100	< 140		< 5.7
당뇨병 전단계	100~125	140~199		5.7~6.4
당뇨병	≥ 126 *	≥ 200 *	≥ 200 **	≥ 6.5 *

* 다른 날에도 확인 된 경우
** 전형적인 증상 : 다음, 다뇨, 체중감소 등

더 조심해야 하는 당뇨 합병증

당뇨병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합병증이 더 문제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증가로 혈관을 망가뜨려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느 장기에 나타나는지에 따라 각종 만성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일종의 혈관병인 만큼 합병증도 대혈관합병증(뇌졸중·심근경색·말초혈관협착 등)과 미세혈관합병증(신증·망막병증·신경병증 등)으로 구분된다. 당뇨병성 신증은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소변검사와 신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안과검진을 한다. 신경병증은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치의에게 알려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만성합병증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다. 발병했을 때는 혈당을 정상으로 조절하여 합병증의 진행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상지질혈증 조절과 혈압관리, 금연도 합병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 예방에 필요한 생활수칙

제2형 당뇨병은 국내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97%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식습관,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 다음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5가지 생활수칙이다.

0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1주일에 한 번씩 체중과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비만한 고위험군은 최초 체중의 5~10% 감소를 목표로 한다. 허리둘레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하여야 한다.
02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늘린다. 운동은 최소 2일에 한 번, 1주일에 3일 이상 시행한다. 1주일에 150분 이상 땀이 적당히 나는 정도의 중등도 강도 또는 90분 이상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는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한다. 금기사항이 없으면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근력운동을 한다.
03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식사한다. 필요 칼로리의 50~60%는 탄수화물, 15~20%는 단백질, 지방 섭취는 25% 이내로 제한한다. 탄수화물은 되도록 전곡류, 콩,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한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는 제한한다.
04 좋은 생활습관을 갖는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적정 수면시간을 유지한다.
05 정기검진으로 위험인자를 확인한다. 모든 40세 이상 성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에는 혈당 및 기본 지질 검사가 포함돼 있어 당뇨병과 관련이 깊은 대사증후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보연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 진료 분야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의 임상 경과와 치료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려면

염증성 장 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말한다.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에는 주로 서구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염증성 장 질환을 알아보자.

글 김현건(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하는 염증성 장 질환

염증성 장 질환은 만성으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일컫는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이 완치가 어려우며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치료를 소홀히 하면 천공, 협착 및 장폐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염증성 장 질환은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면역체계의 이상과 여러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주로 서구, 유럽 등 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점차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염증성 장 질환 발생 보고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1986년부터 1990년까지 10만 명당 크론병 발생률은 0.05명, 궤양성 대장염은 0.34명이던 것과 달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크론병은 10만 명당 3.2명, 궤양성 대장염은 10만 명당 4.6명으로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높은 발생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느 만성질환과 달리 염증성 장 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10대 중반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이다.

궤양성대장염은 대장에서만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직장에서 시작해 연속적으로 위쪽 대장으로 이어져 발생한다. 대장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 환자는 설사, 혈변, 배변긴박감, 복통 등을 호소하며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도 흔히 나타난다.

크론병은 대장과 소장에 모두 침범 가능한 질환으로 궤양성대장염과 비교하여 염증이 깊고 병변의 분포가 연속적이지 않다. 병변의 침범 깊이가 깊다 보니 장 궤양 또한 깊어져 장 천공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 발생 부위의 인접 장기가 염증으로 연결되는 누공을 만들기도 한다. 복강으로 누공을 만들면서 농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며 염증에 의한 장폐색, 혹은 염증이 치유되면서 협착을 만들기도 하는데, 특히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인 회맹부에 발생하며 항문 침범이 흔하다. 흔한 증상은 복통, 설사, 체중감소, 식욕감퇴 등이지만 증상의 종류와 정도는 질환의 침범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궤양성대장염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괴로움이 더 심한 예가 많으며 장기적인 경과와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 일도 많다.

두 질환 모두 증상이 서서히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 때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증상이 없는 시기도 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질환의 침범 부위에 따른 소화관 증상 이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마다 편차가 심해 5~50%의 환자가 소화관 이외의 증상을 경험한다. 주로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소화관 이외 증상을 경험하는데, 흔히 관절, 피부, 눈에 나타난다. 관절은 말초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는 결절성홍반, 괴저화농피증, 눈은 공막주위염, 포도막염, 공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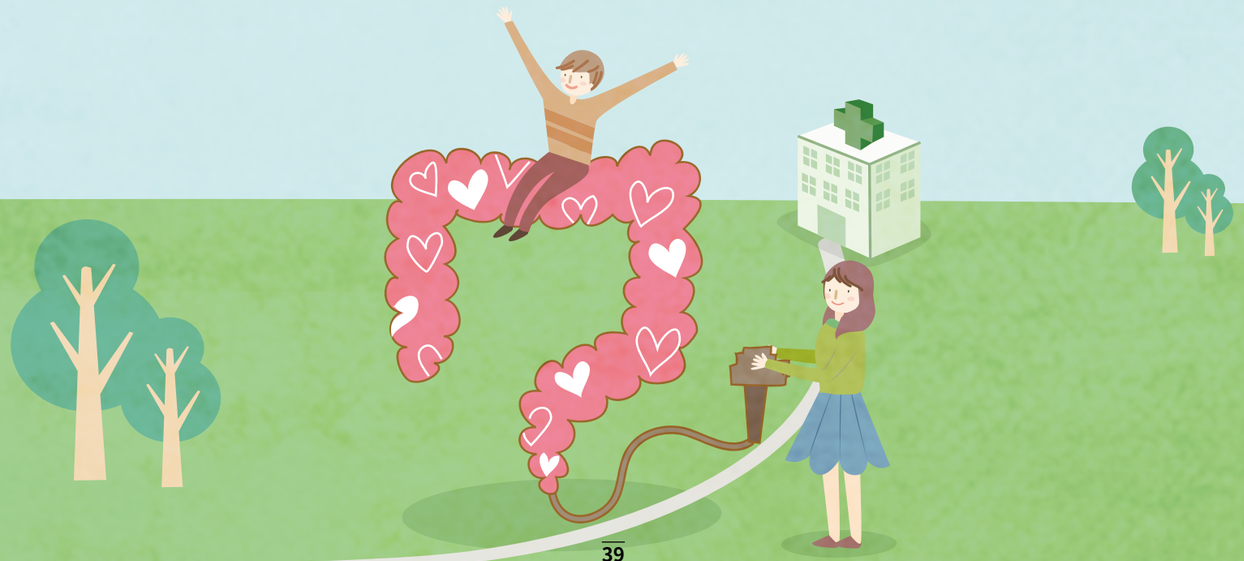
약물부터 수술까지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두 질환 모두 항염증 치료를 목표로 아미노살리실산,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의 다양한 약제를 순차적으로 혹은 조합요법으로 투약한다.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아미노살리실산 제제로 치료를 시도하는데 약제의 성분에 따라 설사살라진(사라조피린, 조피린, 살루딘 등)과 메살라민(살로파크, 아사콜, 펜타사, 콜라잘, 메자반트 등) 제제로 나눈다. 궤양성대장염은 직장의 국소 병변일 때는 좌약과 관장제로 치료를 시도하며 병변 침범 범위가 직장 이외의 장으로 번지면 경구제제를 투여한다. 중등도 혹은 중증 경과를 보일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약제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혈압, 혈당 상승, 여드름, 체중 증가, 안면부위 털 증가, 백내장, 둥근 얼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의 관해 유도에만 단기적으로 사용한다. 크론병은 농양, 치루 등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도 사용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로 관해 유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면역조절제를 사용한다. 특히 스테로이드를 자주 쓰거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서 용량을 줄일 때 임상 증상이 악화되는 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에게 투여하는데 티오프린 계열인 아자티오프린(이뮤란, 아자프린)과 메르캅토퓨린(푸리네톤), 메토트렉세이트 계열이 대표 약제이다. 두 계열 약제 모두 장기 사용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이 있지만 발생율은 매우 낮다. 티오프린은 림프종과 피부암, 메토트렉세이트는 간섬유화, 간질성폐렴 등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약은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제 등의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 누공형 크론병일 때 생물학제제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물학 제제는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 렘시마, 렌플렉시스), 아달리무맙(휴미라), 골리무맙(심퍼니) 등이다. 이들 모두 인체 내 염증과 궤양을 유발하는 TNF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항 TNF 제제이다. 최근에는 항 TNF 제제가 아닌 단클론항체인 베돌리주맙(킨텔렉스) 등도 이용한다. 모두 혈관주사 혹은 피하주사인 주사요법이며 관해 유도 이후 일정 기간 유지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직 투약 기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관해가 유도하는 한 지속적인 투여를 유지하면서 장기 투약으로 인한 효과 감소, 부작용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특히 주사 시 심부전증, 림프종,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시신경염, 다발성경화증, 전신홍반성루프스 등 면역 및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투약 금기 대상이다. 또한 주사 투약 후 결핵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시작 전 결핵 감염 병력을 확인하고 잠복 결핵이 있는지 검사한다. 잠복 결핵 혹은 활동성 결핵이 있는 환자는 항 결핵 치료를 시행한 이후 투약한다.

내과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장 천공, 조절되지 않는 출혈, 장협착으로 인한 폐색과 조절되지 않는 농양 등에는 외과 수술 치료를 시행한다.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려면 약물치료와 동시에 환경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음주, 흡연 등은 증상을 악화하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한다. 바른 영양섭취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오랜 기간 관해를 유지할 수 있다.



김현건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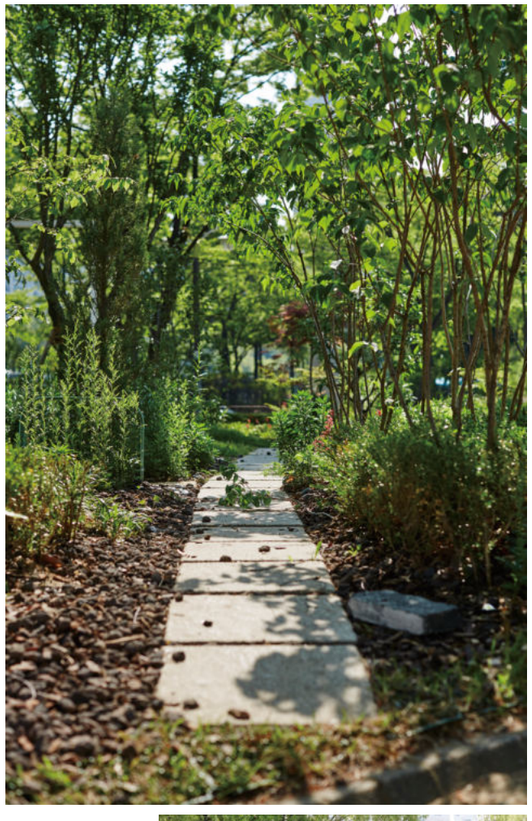
전문 진료 분야 대장종양치료내시경, 조기대장암 점막하박리술, 대장종양항암치료, 염증성장질환, 기타대장질환

부천풍경

여름날 더 아름다운 부천의 공원으로 가자

공원은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한다. 공원에 가면 꽃과 나무가 반기고,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들은 노래한다. 공원을 찾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초여름, 부천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부천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을 찾았다.

글 유미지 사진 제동환(스튜디오100)



부천병원에서 한눈에 담아도 좋다
부천중앙공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0층 휴게실을 찾으면 탁 트인 너른 창으로 공원 풍경이 펼쳐진다. 카페나 호텔의 근사한 뷰(View) 못지않은 풍경에 한순간 마음이 해사해지는데, 이 풍경을 선사하는 주인공은 바로 부천중앙공원이다.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겨 찾는 부천중앙공원은 특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힐링 장소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지루한 입원생활 중에 공원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발 한발 조심스레 재활치료를 하는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부천중앙공원은 1992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완성됐고, 2000년 들어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물론 부천시청과 가까워 부천시민들의 쉼터이자, 부천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손꼽힌다.

초여름, 부천중앙공원에 자리 잡은 온갖 식물은 제 속의 가장 진한 초록을 꺼내놓으며 무럭무럭 성장하는 중이다. 시민들은 우거진 나무 숲 사이 산책길을 한가롭게 오가고, 반려동물은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한다. 졸업앨범을 촬영하는 학생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차림으로 추억을 남기기 여념 없다.

부천중앙공원의 커다란 연못과 작은 개울, 작은 정원마다 자연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야외음악당, 원형놀이마당, 배드민턴장, 배구장, 게이트볼장도 모두 공원 안에 있으니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야외예식장으로도 무료로 개방하니 새겨두자.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에 시원한 실내공간이 그리워진다면 공원 안의 숲속작은도서관으로 향하면 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부천중앙공원은 묵묵히 한자리에서 부천시민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는 이들을 모두 보듬으며 도심 속 든든한 쉼터 역할을 한다. 특히 여름에는 오랜 세월 살아온 나무가 많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매년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꼭 방문해보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62

호수 둘레를 산책하는 상쾌함
상동호수공원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과 인접한 상동호수공원은 2003년 문을 열었다. 상동호수공원도 부천시민의 대표 휴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공간을 제공한다. 공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상동호수공원 중앙에는 커다란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지만 다양한 어류가 서식한다. 호숫가에는 수변 덱(Deck)을 설치해 호수를 따라 상쾌하고 호젓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호수를 둘러싸고 3개의 조깅코스 겸 산책로가 있는데, A코스는 1,050m, B코스는 1,250m, C코스는 750m 길이다.

상동호수공원에서는 계절별로 유채꽃, 꽃양귀비, 청보리, 메밀 등 각양각색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꽃밭 한가운데 풍차는 붉은색으로 존재를 각인한다. 풍차와 꽃밭을 배경으로 인생 컷 한 장 남겨도 좋겠다. 상동호수공원의 또 다른 상징은 〈물의 나라〉라는 조형물이다. 높이 18m에 달하는 이 조형물 또한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자. 공원 근처에는 야인시대캠핑장과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가 자리하니 함께 둘러봐도 좋다.

우리 몸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나치게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꺼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연을 찾아 나서자. 시원하고 청량한 천연 그늘 아래 쉼을 누릴 수 있다. 여름날, 집 근처 공원으로 가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5

원앤원성형외과의원 원기정 원장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원앤원성형외과의원 원기정 원장은 '의사와 환자의 만남' 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다고 말한다. 환자를 만나는 건 곧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 역시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기정 원장의 시선은 결국 사람을 향한다. 그가 집도하는 수술이 안심이 되는 이유다.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지방흡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다

원기정 원장은 순천향의과대학 4회 졸업생이다. 1994년 명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이후 2000년 청담동, 2006년 압구정동을 거쳐 현재 '원앤원성형외과의원'까지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회전식 지방흡입술을 도입했고, 1만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성형'의 독보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처음부터 지방흡입 분야를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개원하면서 인연이 닿았어요. 지방흡입 수술은 다른 성형외과 수술에 비해 더욱 감각과 센스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등 해외 다수의 학회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아름다운 몸매를 조각한다는 정신으로 집도하지요. 요즘은 주로 지방흡입과 안티에이징을 합니다."

원기정 원장은 상담부터 수술, 퇴원까지 환자의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환자의 한 마디,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의 전 과정을 안전하고 무사히 마치려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긴장을 끈을 놓지 않아야 수술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원기정 원장은 몇 해 전 큰 의료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겪었다. 다행히 환자는 무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기정 원장이 얻고 깨달은 건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할 때 산소가 조금 부족하게 들어갔어요. 수술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죠. 명백히 제 책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환자는 무사히 깨어났어요. 그 후로 환자와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오며 숨기지 않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었어요. 무엇보다 환자와 어머니의 이성적인 태도가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명의로 거듭나라는 뜻'이라고 말씀해주셨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 이후 원기정 원장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항목이 하나 더 있다. '진심'이다. 결국 의사와 환자이기 전 사람과 사람이고, 진심을 전하면 통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치료 받는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원기정 원장은 지방흡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지방흡입은 비만을 해결하는 수술이 아니고, 체중감량 효과 역시 미비하다. 단, 사이즈를 줄이고, 체형 변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방흡입수술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대신할 수 없다. 그 역시 4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 심판을 받는다. 날마다 체중을 기록하며 92kg의 체중을 79kg까지 감량했다. 스쾃과 팔굽혀펴기도 꾸준히 개수를 기록하는 중이다.

"다이어트는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생 함께해야 하는 벗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특별하지 않게 시도해야죠. 매일 습관적으로 몸무게를 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나의 놀이처럼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원기정 원장은 환자를 구별하는 노하우가 있다. 지방흡입을 하면 좋은 환자와 해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지방흡입수술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미용수술이다 보니 환자 부담이 큰 것을 염려하는 그의 마음이다. 원기정 원장이 결국 만나고 싶은 아름다움은 몸이 아닌 '마음' 아닐까.

허경열 교수,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취임

허경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과 교수가 4월 25일 서울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44차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허경열 신임회장은 “우리 학회는 외과 분과 학회 중 규모가 큰 학회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 연구를 장려해서 학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열 교수는 우리나라 복강경 탈장 수술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현재는 순천향대서울병원 당뇨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다. 위를 축소해 하부소장과 연결하던 방법 대신, 유문부위와 하부소장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당뇨 수술법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성우 교수, 향산학술상 수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최성우 교수팀(이재철, 정광영, 장해동, 강덕원, 이정석, 신병준)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강릉 라카이리조트에서 열린 2019 제36차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향산학술상을 수상했다. 최성우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은 ‘전공의, 계절, 병원이 수술 후 감염에 미치는 영향 : 전국 규모 코흐트 연구’다. 향산학술상은 대한척추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가운데 연구내용이 우수하고 학문 기여도가 가장 큰 논문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김정식 교수, 인체 유래물 동종 진피조직으로 자궁탈출증 수술 성공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김정식 교수가 5월 8일 인체 유래물인 동종 진피조직으로 자궁탈출증 교정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로써 순천향대학병원은 최근 美 FDA가 판매 중지한 수술용 재료인 ‘메시(Mesh)’ 대신 인체 유래물 동종 진피조직을 이용해 수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美 FDA는 2016년 골반 장기 탈출증 교정술에 사용하는 메시를 고위험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을 요구해왔다.

외국인 의사 연수생 위한 2019 순천향 서울병원 외과 심포지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5월 3일 오후 1시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국내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의사 연수생을 위한 외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 선진의술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2019 순천향 서울병원 외과 심포지엄’은 송단 외과 과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는 1995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수생 심포지엄은 3회를 맞았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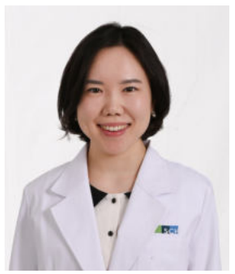
부천병원이 5월 1일부터 8I병동(외과)과 112병동(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해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수준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은 줄이고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 등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인 환자 중심의 서비스다. 부천병원은 2016년 6월 252병동(소화기내과)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111병동(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에 추가된 2개 병동을 포함해 총 4개 병동, 166병상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유방암 6년 연속 · 위암 4년 연속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적정성 평가에서 유방암 6년 연속, 위암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꾀하고,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12월까지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가 치료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부천병원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높은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부천병원은 이번에 발표된 유방암, 위암 외에도 대장암, 폐암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영환 · 한상수 교수, ‘미국 잠수고압의학회 인증 코스’ 자격 취득

이영환·한상수 응급의학과 교수가 고압의학계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잠수고압의학회(UHMS) 인증 코스’를 최근 수료해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 코스는 고압의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Strauss MB 박사가 주관했으며, 국내에서 이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는 극소수다. 이영환·한상수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압산소 챔버를 운영하는 데 큰 비용이 들다 보니 고압산소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이 전국에 26곳 밖에 없어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압산소 치료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 인증의가 양질의 진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민 교수,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이유민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6월 5일부터 8일까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ESPGHAN)’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젊은 연구자상’은 소아소화기 영양분과 전문 과정을 거친지 10년 이내의 젊은 연구자들 중에서 뛰어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유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국내 병원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영양 상태 조사’에서 전국 병원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영양 불량 위험 정도를 최초로 파악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2회 연속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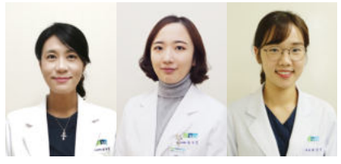
천안병원이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에 2회 연속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부터 2년마다 전국 금연치료사업 참여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천안병원은 2017년 첫 번째 평가에서도 금연치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천안병원은 순천향대학교 충남금연지원센터와 함께 입원형(4박5일) 금연캠프, 금연클리닉(가정의학과외래) 등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화영 교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개설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을 명상으로 치유하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모든 종교와 수행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마음관리의 핵심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6종류의 훈련으로 구성된다.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병원 별관강의실에서 열린다.

암병동 45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

천안병원이 네 번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조성을 마쳤다. 6월 3일, 서비스를 시작한 네 번째 병동은 암병동으로 45병상 규모의 별관3A병동이다. 이로써 천안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 규모는 총 4개 병동, 176병상으로 늘었다. 이번엔 '암환자 입원치료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었다. 별관3B병동(2016년 12월)에 이어 별관3A병동까지 2개의 암병동 모든 병상(총 92병상)에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암환자들의 입원치료 시 간병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정활림·최수인 교수, 유진영 전공의, 수상 및 국비 해외연수자 선정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정활림 교수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자상을 수상, 진단검사의학과 최수인 교수는 대한수혈학회에서 우수논문상('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 수혈 전 검사 프로토콜 운영 경험')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성조숙증의 발병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소아내분비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수상했다. 이밖에 내과 유진영 전공의가 정부가 후원하는 '제4기 미래의사과학자 진로모색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해외 선진국의 R&D 동향을 살펴보고, 바이오기업과 창업현장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단기 해외 연수과정이다.

5월 가정의 달 맞아 카네이션 증정 행사 개최

구미병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5월 8일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상 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들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 드리고,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병원본관 로비에서 한국서예연구원 양태상 원장을 초청해 내원객을 대상으로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임한혁 병원장은 "환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열어

구미병원은 6월 15일,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일원에서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임한혁 병원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강석진 국회의원 등 4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2010년부터 공동으로 기획하여 의료봉사와 일손 돕기, 문화공연 등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한혁 병원장을 비롯해 양승부 기획실장, 김태우 진료부장, 김우석 홍보실장 등의 40여 명의 의료봉사팀이 참여하였으며 소화기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복부초음파, 혈액·소변 검사, 흉부 X-ray, 골밀도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의약품 제공과 더불어 농업인 건강상담도 실시했다.

항생제 평가 3회 연속 최우수 1등급 획득

구미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개두술 대장수술, 백내장 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유방수술 등 19개 수술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환자관리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전체 평균 97.1점을 획득해 참여한 의료기관 전체 평균(79.5점)과 동일종별 평균(84.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 '감사패 전달'

구미병원은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10년 넘게 매년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는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5월 24일)과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5월 31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은 2004년 우리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꾸준히 후원해왔으며, 이번 역시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의료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 또한 2013년 우리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우즈벡 사마르칸트와 업무협약 보건의료분야 발전 위해 상호 협력 약속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제 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과 과학기술, ICT, E-Health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유일하게 사마르칸트 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마르칸트 주 보건의료 지표 향상을 위한 병원 건립 컨설팅, 병원 정보시스템 컨설팅,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학술 세미나와 초청연수 등을 통한 의료진 역량강화이다.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은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사마르칸트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정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이라크,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에 병원 건립과 의료진 초청연수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국립아동병원 건립 운영 컨설팅 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순천향대, 의생명 분야 연구 강화사업 선정

순천향대학교가 교육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내 생명과학 핵심연구지원센터가 교육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돼 6년간 34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의 유휴·저활용 연구 장비를 분야별로 모아 성능을 보완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정부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생명과학 등 5개 분야 20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순천향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에 조성한다. 순천향대 측은 "의생명과학 연구 활성화와 연구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첨단핵심연구 장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해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지역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진행해

순천향대학교가 1년간 대입정보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인천 원당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전국 1,200여 개 고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문단은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전년도 입시결과 안내, 학교·학과 안내, 자기소개서·면접 안내, 일대일 모의면접·피드백, 맞춤형 상담, Q&A 등을 진행한다. 지난 16일엔 경북 울릉군에 있는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3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대입설명회를 열었다. 전교생이 75명에 불과한 이 학교는 육지와 떨어져 정보 소외지역으로 분류된 학교다.

순천향대 문화광장, 수요일마다 버스킹 펼쳐져

5월 29일 저녁 7시 즈음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향설생활관 옆 문화광장에 이적이 부른 〈하늘을 달리다〉 노래가 울려 퍼졌다. 관객 200여 명이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광장에서는 인기 가수 공연장에서나 봄직한 '떼창'이 재연됐다. 공연팀은 이 학교 음악동아리 '큐브', 이들은 이날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꽃송이가〉, 10cm의 〈죽겠네〉, 장범준의 〈담배〉 등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를 불러 갈채를 받았다. '에스시에이치 갓 탤런트'(SCH got Talent)로 이름 붙여진 이 공연은 순천향대가 시행한 1,000여 개의 기숙형 학습공동체 비교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공연은 학기별로 시험 기간 등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밤 8시까지 평균 5차례 열린다.

중국 윈난대와 교류 확대

순천향대는 충남도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 윈난대와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등을 내용으로 지난 3일 우호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서창수 산학협력부총장 등 도청과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교수, 연구원의 상호방문, 교류, 연구 등의 학술연구 협력활동 △학술잡지, 출판물 등 교환과 연구 성과, 교육변화 상황 교류 △우수학생 상호파견 중장기 및 단기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방문 견학 △교환학생 △합작교육 △대학원 진학 프로그램 등 학생 교류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가 윈난성과 이어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순천향인의 축제, 의향제에 후원금 지원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 의료과학대학 축제 의향제가 열렸다. 순천향의대동창회에서는 의향제 행사에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SCH

의대동창회 전임회장단 화합 골프회동

6월 6일 세종시 세종에머슨cc에서 의대동창회 전임회장단 화합 골프회동이 열렸다. 의대동창회 발전을 위한 안건 토의와 하반기 동창회 행사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동회 골프대회 개최

6월 8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순동회 골프대회가 열렸다. 의대동창회 조영덕 회장이 참석해 대회 후원금을 전달했다.

SCH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100

순천향 인술(仁術)
100년을 이어갑니다

하늘 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서울병원 02-709-9114 |

부천병원 032-621-5114 |

천안병원 041-570-2114 |

구미병원 054-468-9114